

협회소식/업계동정

최우수상 한진곤 어린이 차지 11회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

한국유가공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부가 후원한 제11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대회에서 한진곤 어린이(경남 진주 축석국교 6년)의 “나의 건강과 우유”가 영예의 최우수상인 농림수산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또 금상에는 조한아름다움양(영주 부석국교 6년)의 “우유와 나”와 김민호군(대전와동국교 2년)의 “나와 아픔은 우유대장”이 뽑혔다.

한국유가공협회는 11월 8일 입상자 78명을 확정, 발표하고 소속 학교장에게 상장과 장학금(최우수상 20만원, 금상 각 15만원, 은상 각 10만원, 동상 각 5만원, 장려상 각 도서상품권 6매)을 우송, 학교장으로 하여금 시상토록 의뢰했다.<입상자명단 참조>

한편 이번 글짓기대회에는 9백 27편이 응모했으며, 심사는 새싹회(심사위원장 윤석중 회장)에서 맡았다.

파스퇴르유업 협회에서 축출 유가공협, 타유업체 비방들여

‘고름우유’ 광고로 타유업체를 비방한 파스퇴르유업이 회원가입 15일만에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축출됐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10월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 「우리 파스퇴르우유는

◇ 제11회 우유장학금 글짓기 입상자 명단

최우수상(1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한진곤	6-8	경남 진주 축석국교

금상(2명)

조한아름다움	6-2	경북 영주 부석국교
김민호	2-1	대전 와동국교

은상(5명)

엄지영	5-3	강원 정선 고한국교
전미경	4-1	인천 교대부속국교
신수희	6-4	서울 동자국교
김문석	2-4	인천 담방국교
박연주	4	경북 영주 풍기북부국교

동상(20명)

김남우	6-1	충북 단양 적성국교
김보영	4-2	인천 교대부속국교
이근영	6-1	충북 제천 흥광국교
이찬미	6-1	전북 군산 발산국교
김상민	5-6	부산 수영국교
유혜진	6-3	경남 진주 천전국교
나혜민	6-2	인천 교대부속국교
백은미	6-2	경남 진주 봉래국교
이재원	3-3	서울 윤중국교
김현아	5-1	경기 성남 태평국교
유지연	4-1	부산 당평국교
임소라	6-3	인천 교대부속국교
우정은	6-5	충북 제천 흥광국교
이유이	2-2	전남 광주 교대부속국교
이지은	6-3	전북 전주 전라국교
이민지	1-7	경기 이천 이천남국교
변지현	5-4	서울 이태원국교
김정겸	5-1	전북 김제 김제동국교
이소연	3-3	경기 양주 덕정국교
정하경	4-1	충북 청주 강서국교

장려상(50명)

김미례	6-2	충북 청주 강서국교
곽지영	6-5	대전 화정국교
김진영	2-3	인천 주안국교
이진희	6-1	충북 괴산 문광국교
김민성	2-2	경남 창원 명서국교
조규진	5-4	경남 울산 연암국교
박수진	3-1	충북 단양 적성국교
김민정	2-7	경북 구미 형곡국교
임아영	6-1	경기 고양 주엽국교
김유미	6-1	경남 하동 북평국교
엄영인	5-7	서울 잠동국교
정승연	1-고운	경남 마산 회원국교
정숙현	5-4	경남 울산 북산국교
서주현	4-1	서울 삼릉국교
이연실	6-4	서울 상월국교
박지아	6-2	경기 성남 정자국교
오영주	4-1	대전 화정국교
임현주	6	경기 파주 갈현국교
안진영	6-4	충북 충주 예성국교
신은경	6-1	경북 영주 부석국교
박혜상	2-2	서울 신양국교
김상우	1-1	서울 구일국교
안대석	5-1	경남 울산 연암국교
조대혁	2-5	경기 남양주 평내국교
김주성	3-6	경기 남양주 평내국교
최종연	3-2	서울 윤중국교
임재혁	6-9	서울 송중국교
심지혜	6-2	경기 오산 성산국교
황수진	2-10	경기 의정부 가능국교
곽지혜	6-3	경기 성남 이매구교
한정우	2-5	충남 아산 중앙국교
박혜진	6-3	경기 이천 부발국교
홍윤표	3-3	충북 청원 강외국교
채산천	2-2	전북 군산 부속국교
장수경	5-6	경남 진주 천전국교
송민수	6-3	경남 진주 천전국교
이유경	6-8	경북 포항 계철동국교
김신영	3-5	부산 거학국교
손수민	1-4	충북 청주 용담국교
전호성	1-3	충북 청주 용담국교
김주영	2-6	서울 청덕국교
주정은	3-9	경기 고양 낙민국교
함대식	3-1	서울 장평국교
신영미	6-2	대전 자양국교
정혜영	3-1	전남 나주 다시남국교
이희숙	5-1	충북 옥천 군서국교
서요한	2-4	대전 중리국교
하진영	6-3	경남 밀양 밀주국교
이제은	6-1	전북 남원 덕과국교
김준규	2-1	전북 김제 심창국교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로 타유업체의 우유는 마치 ‘고름우유’인 것처럼 비방하여 기존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러 일으킨 파스퇴르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이에 따라 파스퇴르는 10월 14일 협회의 설립목적과 정관, 규정 등을 준수키로 하고 입회금 2백만원을 내고 협회에 가입한지 불과 2주일여 만에 쫓겨났다.

빙그레, 논산공장 증축 준공

빙그레는 충청남도 논산에 아이스크림과 우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완공, 11월 15일 준공식을 가졌다.

빙그레는 진로종합식품에서 인수한 우유공장에 아이스크림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건물을 증축했다고 밝혔다. 빙그레 논산 공장은 앞으로 하루 3만상자의

아이스크림(3만5천t)과 2만상자의 우유제품(7만t)을 생산, 연간 1천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피더스 유산균 菌株 국산화 야쿠르트, 국내최초 개발성공

한국야쿠르트가 국내 최초로 한국형 비피더스균주개발에 성공, 비피더스균의 국산화가 이뤄졌다.<사진>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는 최근 10년간의 연구끝에 한국인의 장내에서 분리한 한국형 비피더스균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된 비피더스균주는 내산성 및 콜레스테롤 분해 능력이 기존 수입종균과 비슷한데다 한국인의 체질에 알맞는 유산균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국야쿠르트는 이로써 국내 유가업체도 그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된 種菌에만

의존해오던데서 벗어나 국산 균주로 요구르트를 생산해 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떠먹는 요구르트 ‘슈퍼100’ 4종 외에 신제품인 ‘슈퍼100 사과’도 이 균주를 이용해 생산, 판매하고 앞으로 국산균주 사용을 전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락, 어린이 전용우유 개발

DHA등강화 ‘에디슨우유’ 시판

비락은 어린이용 우유인 「비락 에디슨우유」를 개발, 시판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 제품이 천연 뇌세포성분 DHA를 다량 함유,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좋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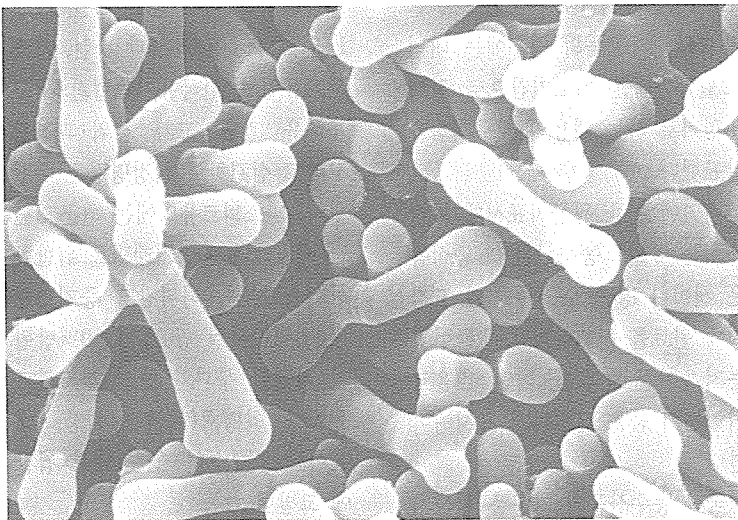
또 뼈가 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천연칼슘과 비타민D₃가 보강됐다. 가격은 180ml 짜리가 330원.

빙그레, 드링크발효유 ‘옴’ 출시 고칼슘우유 ‘생큐 칼슘알파’도

빙그레는 고칼슘우유 생큐칼슘알파와 함께 드링크타입 요구르트 옴을 최근 출시했다.

생큐 칼슘 알파는 고칼슘 저지방(2%) 노콜레스테롤 우유로 임산부와 칼슘이 부족한 여성등에 제격이란 것.

옴의 경우는 수백억개의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강화됐을 뿐아니라 비타민 B₁이 들어 있어 정장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특징.



‘매일맘마 D&A분유’ 시판
DHA·아라키돈산 배합 강화

매일유업(주)는 최근 조제분유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과 DHA를 국내 최초로 배합, 강화한 조제분유 ‘매일맘마 D&A’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매일맘마 D&A’는 지능성분 DHA와 아라키돈산의 함축어로 모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뇌세포 구성성분을 국내 최초로 배합한 인텔리전트 분유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소재와 기술이 미흡하여 실행하지 못했던 DHA와 아라키돈산의 배합 성공으로, 체내 합성이 미약한 유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필수 구성성분을 모유에 더욱 가깝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백질 대사를 활성화하는 NPN(비단백태질소)을 보강, 아기가 소화하기 어려운 유단백질을 저분자화하여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단백질의 질을 더욱 개선하였다.

‘매일맘마 D&A’의 소비자가격은 대캔 8백g이 9천5백원, 소캔 4백g이 4천9백원으로 대형유통점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종합소식

우유등 54개 농수산물가공식품
새해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96년 1월 1일부터 라면과 고추장, 소시지, 우유 및 과일주스를 비롯한 54개 농수산물가공식품에 대해 원료수입국과 혼합비율 등을 반드시 명기토록 하는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다.<표 참조>

농림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원산지표시제를 새해 1월부터 시행하되 작년 11월초에 지정된 30개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지난 9월말에 새로 지정된 1백 64개 국산 농산물 및 24개 가공품의 경우에는 내년 12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하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내년에 처음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되는 54개 농수산물 가공식품은 캔이나 병 등 포장용기와 포장지에 원료를 어느나라에서 들여왔는지, 어떤 원료를 어떤 비율로 섞었는지 등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국산 농수산물과 가공품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면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3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파스퇴르 고름광고 비방 명백
공정위원회, 이의신청 기각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7일 「고름우유 관련광고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 및 시정조치」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파스퇴르유업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공정위는 이날 파스퇴르유업이 지난 5일 공정위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파스퇴르유업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돼 기각했다며 파스퇴르유업측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1월 14일 고름우유 논쟁과 관련, 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의 고름우유 관련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고 심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스퇴르유업에는 최근 3년간 세차레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중시, 허위광고 중지명령 및 범위반사실 공표, 4천9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파스퇴르유업과 최명재(崔明在)회장, 대표이사 조재수(曹在洙)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현황

	기 지정 품목(A)	추가 품목(B)	A+B
	30개류	24품목	54품목류
과자류	(1)	식빵 (1)	2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 분해우유류 (3)	분유류, 치즈, 버터류 (3)	6
식육제품	-	햄, 소시지, 베이컨류 (3)	3
통·병조립	(2)	-	2
두부류	(1)	두부(포장된 것) (1)	2
식용유	(2)	대두유, 옥수수유, 낱화생유 (3)	5
면류	(3)	국수, 당면, 라면 (3)	3
다류	(4)	대추차 (1)	5
청량음료	(1)	채소 (1)	2
인삼제품	(7)	-	7
조미식품	(1)	간장, 된장, 고추장, 케찹(4)	4
절임식품	(1)	오이, 무 (2)	3
단순가공	(8)	밀, 조미김 (2)	10

**公正委, 파스퇴르 또다시 고발
유가공협 광고인용 악의 비방**

파스퇴르유업과 이 회사의 崔明在 회장, 曹在洙 사장 등 3명이 한국유가공협회의 범위반 사실 공표광고를 인용해 상대방을 비방한 광고를 내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12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은 고름우유 관련 광고로 지난 11월 27일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으나 이를 시행치 않고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유가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 차원에서 범위반 사실 공표광고를 내자 이를 그대로 인용, 전제한 광고를 내 마치 유가공협회만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로 판정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파스퇴르유업의 행위가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범위반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날 긴급 위원회를 열고 부당광고를 즉각 중지할 것과 범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법인과 회장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파스퇴르유업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지난 9월 12일과 11월 27일 각각 부당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값 10월 16일부터 6% 인상
위생등급 기준도 개정 동시 시행**
10월 16일부터 낙농가들이 생

산하는 원유가격이 평균 6% 인상됐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두 차례나 사료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가격을 kg당 평균 4백4원에서 4백49.6원으로 6%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원유의 기준 등급가격(유지방을 3.4% 세균수 4급기준)을 현재 kg당 3백94원에서 5.1% 인상된 4백14원으로 조정했다.

또 현행 5등급인 세균수등급을 6등급으로 세분화해 고급질에 가중치를 부여, 농가수취가격을 4백49.6원으로 인상해 실제인상률을 6%가 되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원유값 인상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원유의 위생등급 및 기준을 개정, 고시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원유의 위생등급 및 기준에 따르면 세균수는 1급A의 경우 3만/ml 미만, 1급B 3만~10만/ml 미만으로 조정했으며, 2급부터 등외까지는 현행대로 이다.

또 체세포수는 1급의 경우 20만/ml 미만, 2급 20만~40만/ml 미만, 3급 40만~75만/ml 이하, 등의 75만/ml 초과로 각각 현행보다 상향조정했다.